



7世紀 선덕여왕 리더십의 현대적 照明

- 리더십이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 | |
|--------------------|---|
| 저자 (Authors) | 황명강 |
| 출처 (Source) |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2015.5, 228-239 (12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가정관리학회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59048 |
| APA Style | 황명강 (2015). 7世紀 선덕여왕 리더십의 현대적 照明.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28-239.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6 09:50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4분과 - 발표 4

7世紀 선덕여왕 리더십의 현대적 照明 -리더십이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황명강
GBN 경북방송 대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덕여왕은 신라 27대 왕으로 즉위해 국가를 통치한,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초의 여왕이다. 왕은 632년에 즉위하여 64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으로부터 1368년 전의 일이다. 선덕여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권신장이 급격하게 시작되는 20세기 접어들면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현존하는 이 사회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적 활동 기반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양성평등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현대 여성들은 정치, 문화, 복지, 교육, 경제, 예술, 전문직 등 각계에 진출하여 사회적 리더로서 남성과 동등한 활동을 펼쳐나간다. 역사 이래 불평등했던 남녀 차별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21세기는 여성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7세기에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해 국가를 통치한 선덕여왕(재위 632~647)의 삶과 치적 및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해, 리더십을 분석하고 현대 여성들의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전인 신라 26대까지는 왕

권이 남성으로 계승되었고 전체 56왕을 살펴볼 때 딸 대신 사위가 왕위에 오른 예가 8명, 외손 4명이 왕위에 오른 실정을 감안한다면 선덕여왕이 여성으로서 즉위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선덕여왕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여 애민정치를 펼쳤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당나라에 신라의 젊은이들을 유학시켰다. 또한 현존하는 문화유산인 첨성대, 분황사 및 여러 사찰을 건립하는 등 불교를 통해 문화를 꽃피운 왕이었다. 영토전쟁으로 침예한 대립양상을 벌이던 시기였으나 적절한 인재등용과 외교로 백성들을 지키고 나아가 삼국통일의 바탕을 마련한 선덕여왕의 치세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훌륭한 여성리더로서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덕과 지혜를 갖춘 천성적인 면모와 아울러 여성 특유의 포용적 사랑이 있어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핵가족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정과 가정 외의 영역이 분리된다고 보다는 사회전체를 거대한 공동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꽃피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가를 운영한 여성으로서의 선덕여왕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덕여왕의 생애에 나타나는 선덕여왕의 지적 활동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추출하였으며, 문헌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라시대 선덕여왕의 삶과 통치이념의 리더십 특성을 밝혀냄과 동시에 7C 당시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상 및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7C 신라시대 선덕여왕의 리더십이 현대여성들의 리더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리더십의 특성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요건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 요인을 설정하여 리더십과의 관련성,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십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의사결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1) 신라 여왕으로서의 선덕여왕 리더십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사회에서 양성평등 시대를 열어가는 여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2)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보고 현대여성들의 리더십과 의사결정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7세기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이 현대 여성들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7C 신라시대 선덕여왕의 리더십의 특성은 어떠한가.
2. 선덕여왕 리더십 특성의 현대적 조명
 - 1) 현대 여성들의 리더십, 의사결정 능력, 자기효능감 정도는 어떠한가
 - 2)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현대여성의 리더십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의사결정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4) 현대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자녀 수, 가족형태, 학력, 월수입, 지역과 취업 유무)에 따른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는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선덕여왕과 7C 신라사회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왕위에 올라 여성이라는 난관을 장점으로 되살려 애민 정치를 펼쳤던 선덕여왕(미상~647년)은 사료에서 출생연도의 기록은 없다. BC 632년에 즉위해 재위 16년인 647년 1월 8일에 세상을 떠났다.<김부식, 삼국사기, 1145년> 삼국사기에는 진평왕과 왕비 마야부인의 장녀로, 삼국유사에는 형제자매 서열에 관한 기록 없이 진평왕의 딸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덕여왕의 성장배경과 관련된 기록 또한 없으며 삼국사기를 통해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총명하고 민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삼국유사에 전하는 지기삼사를 통해 지혜로움을 시사하고 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서는 선덕여왕의 즉위를 두고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고 밝히고 있다.<일연, 삼국유사> 이는 성골의 남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신분이 성골인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된다.(이종욱,1999)

또한 선덕여왕이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왕인 진평왕이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을 미리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철(2009)에 의하면 ‘진평왕대는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행해진 왕권강화에 힘입어 중고기의 왕권강화가 마무리되던 단계였다. 진평왕은 즉위 초부터 대대적인 관제정비를 단행하였는데, 이러한 관제정비는 즉위기간 동안 두 차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선덕여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지혜로운 인품과 명민함도 작용하였겠지만 위와 같이 당시의 시대를 형성하고 있던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가능했을 것이라 예측된다.

2. 7C 신라여성의 지위와 선덕여왕의 정치적 면모

고대사회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남성을 보필하거나 종속적 관계를 가져왔다. 이는 당시의 근로형태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 가능한 농업과 축산업, 어업, 수렵 등이었으므로 힘이 센 남성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풀이된다. 씨족사회 이후 국가를 형성하면서부터 영토와 권력 확장을 위한 전쟁이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전쟁에서도 특히 남성이 이를 주도했다. 신라 역시 남성이 이끌어가는 사회였고 딸 대신 사위가 왕위를 잇거나 외손자가 왕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신라시대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이 조선조나 근대사회보다는 더 활발하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라시대는 여성들이 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출토된 황남대총 고분의 북분인 왕비의 무덤에서 금관이 출토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왕비가 생전에 존중받는 존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7세에 왕위에 오른 진흥왕의 모후로서 진흥왕 2년부터 12년까지 11년간 섭정을 한 지소태후가 있었고 진위의 논란에 휩싸여 있기는 하나 화랑세기 필사본에 등장하는 미실을 비롯한 나라의 제사장들이 여성이었음을 볼 때 신라시대에는 많은 여성리더들이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선덕여왕의 정치적 면모를 살펴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영토 확장을 위해 동맹을 맺는다면 적이 되기도 하는, 고도의 전략과 힘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에 왕으로 즉위했다. 또한 남성 중심적인 왕위 계승 체제에서 즉위하였으므로 먼저 자기 확신이 필요했을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왕을 따르게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 보여진다. 선덕여왕은 여성으로서 신라 최초의 왕위에 올랐으므로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였으며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힘을 백성들이 느끼게 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했다. 삼국사기에는 632년 1월에 선덕왕이 즉위하면서 애민정치를 펼쳤고 2월에는 대신 을제를 대신(상대등)으로 기용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했으며 즉위 3년엔 연호를 ‘인평’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로 바꾸어 독자성을 추구했다. 인재등용에 있어서도 김춘추와 김유신을 매우 가깝게 쓰는 등 균형을 통한 카리스마를 구현하는 정치적 발자취를 보였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과 왜와의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는 등 선덕여왕의 균형 있는 정치적 감각은 다방면에서 발휘되었고 백성과 국가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3.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리더십(leadership)은 조직행동과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영향력을 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 내의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

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직 연구에 있어서 리더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 왔으며 어느 사회과학 분야보다도 오래된 분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리더십은 개인적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위가 부여하는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며 모든 공식적·비공식적 차원의 영향력을 총칭하기도 한다. 개인적 속성으로서는 판단력과 결단력, 카리스마 등의 요소를 의미하며, 지위가 부여하는 권한은 권력과 권위, 책임 등을 지칭한다. 리더십은 리더의 공식적 권한에 의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잠재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힘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리더십은 리더의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리더의 공식적 권한 및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조직 구성원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의사결정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상황 또는 장차 일어나리라고 생각되는 상황으로부터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목표를 선택하고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 가운데 특정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정신분석학, 심리학,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역량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의 행동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으로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포기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일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와 K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과 D광역시와 K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2014년11월1일~2014년11월15일)를 거쳐 본 조사는 2014년11월20일부터 2014년11월30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리더십 55문항, 의사결정 30문항, 자기효능감 30문항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 500명중에서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9부를 제외한 451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도구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3. 연구절차 -예비조사, 본조사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선덕여왕 리더십 유형의 특성

본 연구의 첫째 목적으로서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으로서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각각의 요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카리스마 리더십, 섬김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셀프리더십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1) 카리스마리더십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편에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우고 성조황고(聖祖皇姑)의 칭호를 올렸다.」는 내용이 즉위 원년 1월의 기록에 나타나있다. 또 삼국유사 권1, 기이(紀異)2 선덕왕지기 삼사(善德王知幾三事)편에 있는 세 가지 기이한 일 중에서 모란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

위의 내용만 유추해보아도 선덕여왕은 공주시절부터 영민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많은 이들을 압도하는 왕으로서의 카리스마리더십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또 자신의 타고난 자질과 관리는 물론이고 리더의 큰 덕목인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할 줄 아는 안목을 지녔을 것이란 예측도 재위 기간 중의 행보에서 드러난다. 삼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딛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덕여왕의 열린 인재등용 정책, 백성의 마음을 무력이 아닌 문화와 종교를 통해 결집시킨 정책, 당나라, 일본, 고구려, 백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의 독특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조황고란 칭호를 받으며 즉위한 원년에는 대신 을제로 하여금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으나

3년에는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고 국가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왕권을 서서히 강화하였음도 보인다. 또 선덕여왕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였던 김춘추와 김유신은 후일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거니와 재위 기간 내내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 여성 왕으로서 직접 칼을 빼고 전쟁터를 누빌 수는 없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한 리더십이야말로 역사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선덕여왕의 치세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장을 비롯한 승려들과 화랑, 신라의 백성들이 왕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나라의 경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이를 통해 선덕여왕의 유연성 있는 카리스마리더십을 발견하게 된다.

2) 섬김리더십

선덕여왕은 덕을 갖춘 애민정신에 입각한 섬김리더십의 정치가였다.

즉위 당시의 정확한 나이가 기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료 속 인물들의 활동 연대를 비교해 보건데 50세 전후 왕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연륜이 가져다준 통찰력과 타고난 품성과 포용의 여성성이 결합되었기에 선덕여왕의 백성을 섬기는 정치적 행보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선덕여왕이 즉위해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백성을 향한 구휼정책이었다.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는 즉위 원년에 각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구휼정책을 펼쳤다고 나온다. 또 즉위 2년에는 여러 주와 군의 1년간의 조세를 면제했고 즉위 7년 칠중성에서 일어난 고구려와의 전쟁에 있어서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하여 놀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전쟁에 임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선덕여왕 즉위 원년인 623년 겨울 10월에 ‘사자(使者)를 보내서 나라 안의 홀아비와 홀어미,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혼자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진휼하였다.’는 것이다. 나 아닌 남의 아픔을 헤아리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로할 줄 알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리더십,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등용해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선덕여왕의 리더십이야말로 섬김리더십의 충실한 표본이라고 하겠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 탐상편에 나오는 지귀설화에도 엄격한 골품제도가 존재한 당시의 신라사회에서 신분을 초월하는 선덕여왕의 애민사상이 녹아있다. 이 설화는 선덕여왕의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의 일면을 보여주는 단편일 따름이며 15년의 재위기간 동안 시종 섬김리더십 정책이 펼쳐졌음이 드러난다.

3) 창조적리더십

최근 정부시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창조경제, 창조문화 등이 선덕여왕대에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문화, 과학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했으며

선덕여왕은 종교를 포함한 과학, 문화, 예술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정치를 구현했고 실례로는 첨성대와 황룡사 9층탑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은 신라시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최대 생산수단이었으며 국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농업의 발전을 꾀한 과학의 활용으로써 일기를 관측하는 천문대를 세웠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 기구로 알려지는 첨성대는 당시의 설계와 시공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를 증명하며 137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경주시 인왕동 그 자리에 서있다. 첨성대의 아름다운 조형미는 세워진 목적과 아울러 매우 독특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하, 좌우로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곡선미는 선덕여왕의 백성사랑을 연상하게 하는 부드러움과 풍성함이 드러나 있다. 또 안타깝게도 고려시대에 전란으로 소실된 황룡사 9층탑의 건립에 있어서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 탑상편에서의 기록에는 제27대 선덕왕 12년(서기 636년)에 당나라 유학길에서 귀국한 자장대사의 발원으로 백제의 장인 아버지와 이간 김용춘이 200여 명의 소장들을 데리고 황룡사 9층탑을 세웠다고 나온다.(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9층의 의미는 신라, 백제, 고구려 중에서 약소국이던 신라가 통일을 염원하며 주변의 9개 국가를 제압한다는 뜻에서 1층 일본, 2층 중화, 3층 오월, 4층 탁라, 5층 응유, 6층 말갈, 7층 거란, 8층 여진, 9층 예맥을 상징한다고 했다.(삼국유사 탑상편) 이와 같이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은 불교를 통한 정신적 결집과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전략이 함축되어 있었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이는 선덕여왕의 창조적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또 국가 발전의 큰 축이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등이라고 보았을 때 선덕여왕이 교육을 중시하여 젊은이와 승려들을 당나라로 보내서 유학을 시켰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도 창조적리더십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4) 셀프리더십

선덕여왕은 지기삼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예지력을 가진 명민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다. 여성이었기에 전장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위엄을 드러냄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종교와 문화, 교육과 인재등용을 통해 백성들 스스로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켜 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이러한 사찰을 찾아서 기도를 올렸다는 것은 왕의 자기관리 즉 인성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기도란 신이나 절대자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도록 빈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엄격한 자기관리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덕여왕은 인재등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인재를 찾아서 중용 했고 이들의 활약이 있어 문화를 꽃피웠으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전쟁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은 화랑들의 활약, 가족마저 미루어놓고 전장을 누빈 김유신 장군의 투철한 정신, 목숨을 담보로 한 김춘추의 외교전술 등등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 없이는 행하기 어려운 행보들이었다. 경주시 서면 운대리에 선덕여왕이 행차했다는 ‘나왕대’가 있는데 왕이 나들이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빼어난 경관을 사랑하는 곳도 아닌 작은 못가에 단순히 여행을 위한 나들이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군사들을 배웅했거나 맞이하기 위한 행차였을 가능성을 예측해본다.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상대를 아끼고 배려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리더십이야말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셀프리더십을 행함으로 선덕여왕은 충성스런 신하들과 함께 국가의 장래를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 문화와 경제, 복지 등을 융합한 이상적인 지도자의 면모를 선덕여왕은 15년의 재위 행보에서 보여주고 있다.

2. 선덕여왕리더십 특성의 현대적 조명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이 현대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대여성들의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은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다.

여성의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대여성들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 리더십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리더십이 리더십 전체와 하위변인분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들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리더십이 리더십 전체의 하위변인별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리더십 전체 및 하위변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하위변인 중 창조적 리더십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여성들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 전체 및 하위변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하위변인 중 지관적 의사결정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 하였다. 즉, 여성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전체)을 살펴보면 리더십이 높고 의사결정 능력이 높으면 자기효능감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리더십의 하위변인 중 카리스마리더십과 의사결정의 하위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카리스마리더십이 높고 합리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을 잘 할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첫째, 7세기의 신라시대 최초의 여왕으로서 난세에 화랑도를 길러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선덕여왕의 생애를 통한 치적과 사상을 통해 나타난 그의 리더십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 이러한 7세기 의 군주의 리더십을 반영하는 선덕여왕의 리더십이 오늘날의 현대 여성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며, 이러한 리더십 특성이 오늘날의 여성에게 필요한 덕목으로서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7세기의 리더십 특성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리더십특성으로서 기능하는 덕목인지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을 추출한 결과, 카리스마리더십, 섬김리더십, 창조적리더십, 셀프 리더십의 4가지 특성이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현대여성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우선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리더십이 높으면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리더십 특성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리더십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의사결정은 부분매개효과가 입증되어,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이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연령, 자녀수, 가족형태, 학력, 월수입에서 리더십,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결론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7세기의 선덕여왕의 리더십의 특성은 카리스마리더십, 섬김리더십, 창조적리더십, 셀프 리더십의 4가지 특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이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의사결정을 매개 변수로 하여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7세기의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은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유의미한 리더십 특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의사결정이 매개 변수로 작용할 때 부분매개효과가 입증되어, 리더십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변인이 중요한 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의사결정의 실행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덕여왕에 대한 리더십을 규명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선덕여왕의 리더십 특성을 밝혀낸데 큰 의의가 있으며, 또한 이를 현대 사회에서의 의의를 밝히려는 시도로 현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 요인을 설정하여 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의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2. 제언

이상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D광역시와 K시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덕여왕의 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사료가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묻혀있는 사료들의 발굴과 활용이 필요해진다.

또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조사자의 방어적인 부분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추후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십 특성,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성들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리더십의 형성과 확립을 위한 교육과 실천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재철(2009). 「선덕왕의 정치적 기반과 대외정책」,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종욱(1999). 『신라 골품제 연구』, 일조각.
- 일연 저, 신형식(1981).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1981.
- 박성규 역(2009). 三國遺事, 서정시학사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